

↑ 코스피	↓ 코스닥
2718.76 (+25.19)	887.52 (-2.41)
↑ 금리	↑ 환율
3.273 (+0.022)	1317.60 (+3.10)

새출발기금
약정률 높지만
정부 목표 11% 불과
08



M-커버스토리

증시 부양 등 긍정효과 ‘글썸’ 오히려 주가 변동성만 키웠다

공매도 금지 5개월

코스피 지수 일간 변동성 1.12%
금지 이전 대비 0.22%p 확대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정책·저PBR 투자가 반등 이끌어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공매도 금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위험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의 주된 이유로 증시 부양과 변동성 축소를 꼽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한 만큼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가 시작됐던 작년 11월 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코스피 지수의 일간 변동성은 1.12%다. 이는 작년 1월부터 금지 기간 이전까지의 수치에 비해 0.22%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일간 변동성은 하루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구한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가의 오르내림이 심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일부 종목에서 크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며 속절없이 떨어지는 종목도 자주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이후 이날까지 코스피는 13.23% 코스닥은 13.76% 올랐다. 특히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2020년 코스피 지수가 3000p를 돌파하는 등 상승장을 보였으나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 지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초에 2400선을 위협 받은 코스피 지수는 1월17일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반등하기 시작했다. 정부정책과 함께 단기 급등세를 보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종목 투자 열풍이 반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협회 대표는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된 건지

안 된 건지 체감하기 어렵다”며 “최근 주요 국가들이 전교점을 돌파하고 분위기도 좋고 모든 지표가 나쁜 게 없는데 국내 증시만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숨어 있는 공매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초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개별 종목 단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특정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수단에서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매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꺼번에 공매도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면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지만 보통 지수 움직임은 대형주가 더 이끄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주 움직임에 대해서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중소형주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과일·채소 납품단가 지원 확대

최근 채소,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13개 채소, 과일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289억원으로 확대하고 4월까지 소비자 할인지원 예산도 23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농식품 비상수급 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정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채소코너 모습. /뉴시스

최근 채소, 과일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13개 채소, 과일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289억원으로 확대하고 4월까지 소비자 할인지원 예산도 23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사교육 경감’ 칼 뽑았지만 총액·참여율·시간 ‘다 늘었다’

작년 총 사교육비 27.1조... 4.5조 ↑
증가율 줄었지만 3년 연속 최고치

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p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 시장에 대대적으로 칼을 겨눴음에도,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 시간, 비용 등이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참여율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영역에서 상승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4.5% (1조2000억원) 증가해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 (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이처럼 늘며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 (10.8%)의 절반 수준이지만, 상승세는 지속됐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특히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6월 수능을 넘겨 달 앞두고 나온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불안 요인이 사교육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킬러문항 배제나 공정 수능의 방향은 시간이 지나 안정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도 4.3%, ‘중학교’는 1.0% 올랐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p 늘어 43만4000원이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5%p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78.5%로 전년 대비 0.2%p 높아졌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p 상승해 86%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0.5%p 높아져 66.4%를 기록했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유일하게 낮아졌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평균 7.3시간으로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이다. /이현진 기자 ihj@

주총 앞둔 산업계, 수장선임·배당 등 ‘표대결’

19일 고려아연 등 주총 시즌 개막 경영권·주주환원 등 빅매치 예고

국내 산업계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과 주주환원 등을 놓고 치열한 표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0여년간 동업 관계를 맺어온 고려아연과 영풍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비롯해 ‘조카의 난’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태광산업의 경영 참여를 위해 이사 후보를 추진하겠다는 사모펀드의 움직임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19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영풍, 고려아연의 다툼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75년간 제련 사업을 함께 한 영풍의 장가와 고려아연의 최가는 배당금을 두고 다투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으로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

당 승인과 신주인수권 및 일반 공모 증자 정관 변경을 정했고 영풍은 이에 반대했다.

영풍은 배당금을 2022년 결산 기준 1주당 1만원으로 회복하자는 안건을 올렸고 정관 변경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영풍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신주발행 시 외국 합작법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현재 정관을 삭제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에 영풍은 ‘배당금 원상복귀’와 정관 삭제를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설전을 펼치고 있다.

21일 주총을 개최하는 포스코홀딩스는 새로운 사령탑 선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가 추천한 장인화 회장 후보의 선임안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지분 6.71%를 소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외유성 호화 출장’을 이유로 포스코홀딩스의 이사회 구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포스코이사의 독립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너가 세력 다툼도 이번 주총의 관전포인트다. 22일 주총을 예고한 금호석유화학은 행동주의 펀드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로부터 권리를 위임 받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기보유 자사주, 지분 18.4%를 소각하라는 주주 제안을 냈지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3년간 50%를 분할 소각하고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다며 일반주주 표심 잡기에 나섰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의대 찾은 이주호 부총리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 독려해달라” /사진 뉴시스
▲ 이재명, 대전서 총선 필승 결의... “패륜 정권 심판해야”

▲ 민주, 윤 정부 R&D예산 삭감에 “대전 내일 파괴”... ‘중원 민심’ 공략
▲ 민주당 부산 중·영도구 전현직 선출직, 원팀 선임



▲ 한 총리, 드론테러 등 국가 대테러활동 점검... “국민 보호 최우선” /사진 뉴시스
▲ 여 비대위, ‘이해훈 공천’ 의결에 “추가 의혹 나오면 재논의”